# 장애신학 이해: 장애를 '결핍'이 아닌 '신학적 주체'로 다시 읽기

*zoom meeting: 3/12/2026*

인도: 이현아 교수 (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)

강의: 이준우 교수 (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)

## 1. 들어가며

본 글은 장애신학에 관심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, 최근 진행된 Zoom 미팅에서 이준우 교수(강남대 사회복지학부,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)가 제시한 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장애 이해의 패러다임을 정리한 것이다. 본 논의는 단순한 이론 소개를 넘어, 교회와 현장에서 장애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. 또한 본 글은 향후 관련 교육 과정(기독교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 수료증 과정)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포함한다.

## 2. 장애에 대한 신학적 패러다임 전환

기존 교회 내 장애 이해가 "치유 중심 모델"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. 즉 장애를 '고쳐야 할 상태'로만 이해하는 전통적 시각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이준우 교수는 장애를 바라보는 핵심 전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.

-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**하나님의 형상(Imago Dei)** 안에 포함된 인간 존재의 한 양상
- 장애인은 '치유의 대상'이 아니라 **하나님 나라의 구성 주체**
- 신체적, 정신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**영적 관계성과 믿음의 상태**

이 관점에서 장애는 제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, 오히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자료로 기능한다.

## 3. 성경 해석: 장애의 재의미화

성경 본문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재해석을 강조하며,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언급한다.

- **야곱의 절뚝거림(창세기 32장)**: 신체적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 부여된 정체성의 전환

  야곱이 절뚝거리며 얍복강을 건널 때, 하나님은 그에게 '이스라엘'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. 장애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.

- **요한복음 9장 맹인 이야기**: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"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통로"
- 복음서 전반: 장애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,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

이러한 해석은 장애를 "비정상 상태"로 규정하는 기존 신학적 프레임을 해체하며 장애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위치시킨다.

## 4. 교회와 공동체의 책임: 포함과 존중

그는 교회가 장애인을 향해 가져야 할 핵심 태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.

- 장애인을 "돌봄의 대상"이 아닌 **동등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**으로 인정
- 장애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**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의 실재**
-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장애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**필수 교육 과제**

## 5. 장애신학과 미래: 기술, AI, 돌봄의 확장

장애신학이 단순한 신학 담론에 머물지 않고, 기술 및 사회복지 실천과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.

그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.

- AI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 보조 연구
-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감소를 위한 환경·감각 기반 접근
- 의사소통 보조기기(AAC), 감각 보완 기술 연구

-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술이 반드시 "인간 중심적 관점"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

즉 기술 발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, 그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관계성 회복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이다.

## 6. 마무리: 장애신학의 핵심 통찰

장애신학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수렴된다.

1. 장애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**신학적 의미를 지닌 존재 양식**이다.
2. 교회는 장애인을 "돕는 대상"이 아니라 **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주체**로 이해해야 한다.
3. 장애신학은 기술·돌봄·교육과 연결된 **실천 신학적 확장 영역**이다.

## 안내

본 글에서 다룬 내용은 <기독교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> 장애신학과 교회 강좌의 일부 핵심 관점을 요약한 것으로,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해는 관련 수료증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. 이는 신학적 이해를 넘어 실제 현장 적용과 통합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학습 경로가 될 것이다.

수료과정 보기